유채의 질감이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

석태린 개인전 '내 마음의 정원'

나무와 집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비구상화

파스텔조 중간색 활용 현실적 분위기 억제

석태린의 개인전 '내 마음의 정원'이 4월 2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열린다.

석 작가는 최근 수채에서 유채로 재료를 바꾸면서 좀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조형언어를 구사한다. 무엇보다도 유채 특유의 질감과 화사한 발색으로 인해 그의 작품은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수채화에서 보여준 청색 중심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달리 한층 밝고 온화하고 우아한 느낌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느낌은 밀착도가 높은 유채의 질감이 만들어 내는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기인한다.

작업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겼다. 구상과 추상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구성에서 최근 작업은 사실적인 이미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부분적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적인 묘사 중심이다.

정물화는 그의 작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표현과 사실묘사의 대비가 특징이다.

꽃이 탁자라든가 바닥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공간에 집합해 있는 형국이 마치 무한한 공간 속에 꽃과 추상적인 이미지가 떠 있는 듯싶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공간개념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순수한 회화적인 조형공간을 연출해낸다.

풍경화는 너른 들판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석 작가는 나무를 전면에 세움으로써 심도 깊은 공간을 그려낸다. 화면 밖으로 나가는 큰 나무 사이로 내다보이는 들녘에는 집과 밭 그리고 길이 자리한다.

그는 작품에서 나무와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구상화 한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시킴으로써 극적인 대비를 통한 조형미를 부각한다.

석 작가는 전체적으론 파스텔조의 중간색을 적절히 활용하여 현실적인 분위기를 억제하고, 회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풍경화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정해은 기자

글린카 · 차이코프스키… 러시아의 고전과 '낭만'

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내달 4일 소리문화전당서 무대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27회 정기연주회를 다음달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러시아 음악가 글린카·차이코프스키의 명곡들을 선보인다. 공연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을 오프닝으로,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교향곡 5번' 등 러시아의 고전·낭만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은 러시아의 대문호 푸슈킨의 서사시를 소재로, 시르코프 등이 대본화하고 글린카가 작곡한 총5막의 장대한 오페라다. 악마에게 빼앗긴 루드밀라를 구출하는 과정이 러시아풍의 멜로디와 다양한 음악적 색채로 펼쳐진다.

이어지는 차이코프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한려한 기교와 감각적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첼리스트 이정란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또 한 곡의 '교향곡 제5번'은 한국인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매우 감성적이다. 곡은 슬프면서도 달콤한 선율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세련되기 그지없다. /정해은 기자

'나무 심기 좋은 날이죠' … 국립전주박물관 식목일 행사

내달 7일 박물관 옥외 뜨락서 가족 단위 관람객 대상으로

국립전주박물관은 식목일 행사로 '나무 심기 좋은 날'을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박물관 옥외 뜨락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가족이 함께 나무를 심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주박물관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총 100 가족에게 율마나무(한정 수량)를 제공하고, 나무 심기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율마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관엽식물로, 잎이 마치 황금빛 깃털 같다고 하여 '골드크레스트 율마(Goldcrest wilma)'라고도 불린다. 실내 공기청정에 효과가 있어 국내에선 인테리어 용으로 인기가 높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과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고, 참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식목일 행사로 '나무 심기 좋은 날'을 오는 4월 7일 오후 2시 박물관 옥외 뜨락에서 갖는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이와 함께 행사 당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영화 '디플메틱-몸속 탐험대'가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예술농부' 참여 예술인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은 '완주로컬푸드, 예술이되다-예술농부'에 참여할 글·사진·영상분야 전문 예술인(단체)을 모집한다.

예술농부는 완주 대표 이미지 '완주로컬푸드(농업)'와 '예술'을 결합, 도농복합도시 완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예술농부는 예술인의 시선과 해석으로 기록한 농부의 삶을 통해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이의 조화로운 삶의 지혜를 전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완주문화재단 이상덕 상임이사는 "예술농부 사업은 최근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도 반영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완주 고유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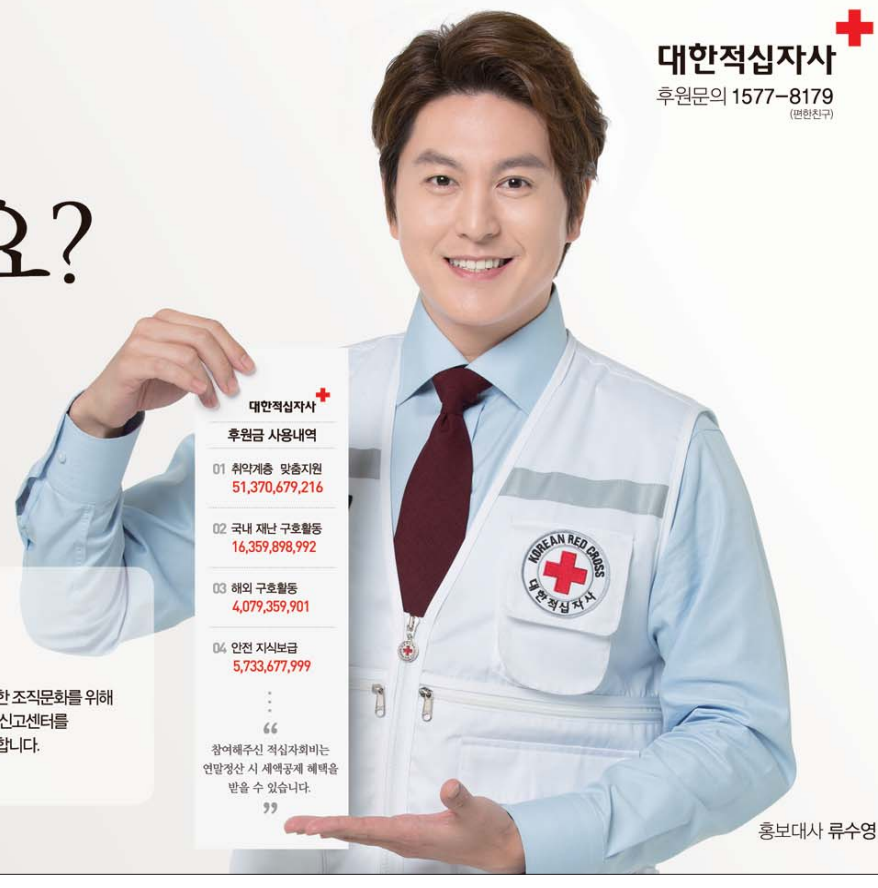
지원신청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편한친구)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홍보대사 류수영